

2021
4. 26

KRIHS POLICY BRIEF
No. 81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 1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이하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융자 등 금융 지원 실시
- 2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에 예산안이 약 9,8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중앙 직영방식의 경직적 운영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
- 3 일본은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하여 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펀드 운영, 미국은 CDFI 펀드를 조성하여 전국의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역맞춤형으로 금융 지원

정책방안

- 1 (기본방향) 2단계 도시재생 뉴딜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인프라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로 확장시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
- 2 (운영체계) 중앙 주도형의 방식에서 광역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
 -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지역금융기관 등 전문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주체 또는 사업을 발굴, 교육, 육성 및 지원
- 3 (자원조달 및 지원방식) 국가와 지자체 자원뿐만 아니라, 신탁·새마을금고·지역은행 등 지역금융기관, 민간기부, 클라우드 펀딩 등 민간 분야 공동 재원 마련 모색
 - 사회적 가치에 따른 지원조건 차등화 및 사후관리 강화, 지원대상 공간범위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금상품 제공, 정보의 사전 공개 등 투명성 강화
- 4 (시범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도시계정 신설, 광역지자체 사회적 경제기금 연계 등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금융자원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박소영 연구위원
정소양 부연구위원
홍나은 연구원

1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필요성

예측하기 힘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접근방식은 지역문제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간의 이해갈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통제과정에서 흔히 정보의 은폐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 같은 문제해결에 한계(천관울 2020)

- 오츠는 '분권화 정리'(1972)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 공공재의 공급은 지방정부가 담당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증명
-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자유로서의 발전」(2013)을 통해 경제위기나 사회적 혼란에 대응해서 권위주의보다 현장전문가의 문제포착과 아이디어가 행정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체제가 기근과 같은 문제해결에 더 효과적임을 제시

저성장, 인구감소와 같은 구조적 변화 앞에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쇠퇴문제와 지역 여건의 차이를 고려할 때, 중앙주도의 문제해결보다 지역주도의 접근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금융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조절함으로써 최저비용으로 자본동원을 극대화하고 자원의 최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있어 예산의 한계를 보완 가능(김은경 외 2017)

2

도시재생기금 운영 현황과 특징

도시재생 뉴딜이 시작된 이래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지원 확대

국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통하여 재정 지원 가능

- (지원규모) 예산이 주로 공적부문에 지원되는 반면, 기금은 민간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으로, 2018년 약 3,358억 원(결산 기준)에서 2020년 약 9,776억 원(계획안 기준)으로 크게 확대
- (사업유형) 크게 리츠 등 대규모 복합개발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사업과 도시기능 증진지원사업으로 구분
 - 도시재생지원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이 주로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수요자 중심형사업(현재, 씨앗양자사업)은 개별 일반인도 지원이 가능
 - 2019년부터는 융투자뿐만 아니라 사업을 기반으로 투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도입
- (운영방식)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은 5개 시중은행에 위탁 운영하는 반면,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영하여, 부산본사와 서울서부지사 2곳에서 취급

표1 국가 도시재생 재정 지원 규모

구분	예산	기금
재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뉴딜 로드맵 목표액	연간 약 2조 원 (국비 8천억 원, 지방비 5천억 원, 부처 7천억 원)	연간 약 4조 9천억 원
2020년 예산안	7,791억 7,700만 원 • 도시재생사업: 6,972억 1,700만 원 • 기타: 819억 6천만 원	9,776억 5,700만 원 • 도시재생지원: 3,089억 5천만 원 • 수요자 중심형(씨앗): 2,306억 원 • 소규모 주택: 3,675억 원 등

출처: 박소영 외 2020, 34-35의 표 내용 저자 재구성.

표 2 도시재생기금(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지원사업 구성

종류			한도	이율	관련 법률
도시 재생 지원	도시재생 지원(출자)		총사업비의 20% 이내	-	
	도시재생 지원(용자)		총사업비의 50% 이내	연 2.2%	
	【보증】도시재생PF보증		총사업비의 80% 이내	-	
도시 기능 증진 지원	도시재생 씨앗 (용자)	공동협업공간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범위 내 (임대료 인상을 제한 시 최대 80%)	연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가리모델링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총사업비의 70%		
		임대상가조성자금	총사업비의 80%		
		【보증】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지원자금 보증	총사업비의 70% 이내 (임대료 인상을 제한 시 최대 80%)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용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 시 70%, 공공참여 시 90%)	연 1.5% (빈집활용시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보증】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총사업비의 50~90%	-	
	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자)	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총사업비의 50%	연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산업단지 리모델링	총사업비의 70%	연 1.5%	

주: 도시재생씨앗 상품은 용자대상 시설의 총 연면적이 1만㎡ 미만, 용자 승인한도는 공공의 경우는 100억 원 미만, 민간의 경우는 50억 원 미만이어야 함.
출처: 국토교통부 2021.

운용 현황은 도시재생 지원이 약 47%로 가장 금액이 크지만, 빈도수는 수요자 중심형이 67%로 가장 높음

- 국회예산정책처(2019)에 따르면 도시재생 지원이 대규모 사업인데 비해, 낮은 수익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유찰되고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에 대하여 비관적으로 전망
- 세부사업별 빈도수는 코워킹시설 조성이 45.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대상가 조성이 20.5%, 가로주택 정비가 19.8% 순임
- 2019년 하반기 공모사업부터는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을 제외하고 있어 2020년 이후부터는 생활SOC 조성 등 지자체 또는 공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 사용 집중

표 3 도시재생기금 운용 현황(2017~2019년)

구분			금액		빈도수		연도별 빈도수		
			억 원	비율(%)	개소 수	비율(%)	2017년	2018년	2019년
도시재생 지원	도시재생 출·용자		6,669	46.9	12	3.9	2	5	5
도시기능 증진	수요자 중심형	코워킹시설조성자금	1,892	13.3	107	34.7	3	52	52
		상가리모델링자금	66	0.5	14	4.5	1	4	9
		생활SOC조성자금	85	0.6	1	0.3			1
		창업시설조성자금	95	0.7	22	7.1	1	13	8
		임대상가조성자금	1,489	10.5	63	20.5			63
		소계	3,627	25.6	207	67.1	5	69	133
	소규모 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2,994	21.1	61	19.8	9	21	31
		자율주택정비	207	1.5	25	8.1		5	20
		소계	3,201	22.6	86	27.9	9	26	51
	노후산단재생		720	5.1	3	1.0			3
합계			14,217	100.0	308	100.0	21	169	322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자료.

수요자 중심형 상품의 용자대상을 살펴보면, 개인이 83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일반 법인이 33건,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전체 133개 중 11%인 14개소에 불과

- 전체 상품 수요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93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으며, 다음으로 전남·경기·전북·인천이 20~30건 수준임
- 서울과 경기를 합한 수도권의 기금 지원이 전체의 41%를 차지

표 4 수요자 중심형 상품의 용자대상(2017~2019년)

구분		빈도		비율(%)
개인		83		62.4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1	14	0.8
	협동조합	3		2.3
	사회적기업	9		6.8
	예비 사회적기업	1		0.8
법인	리츠	1	34	0.8
	법인	33		24.8
공공기관		2		1.5
합계		133		100.0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자료

중앙주도 공급자 중심의 접근으로 지역수요 미스매치와 경직적 운영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 부재

- 단일 재원의 중앙 직영방식 운영체제로 국회·언론·감사 등 중앙 차원의 외부 의견에는 민감하나, 지역 수요에는 둔감
- 담보 등 정량적 기준을 대신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얻는 지역의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의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 부재

중앙 직영방식으로 인한 경직적 운영

-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국비 지원과 연동하여 기금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민간보다 지자체·공기업 중심으로 기금 운영
- 세부 심사기준, 총 용자 규모 등 중요 정보의 사전공개 부족으로 예측가능성, 투명성 미흡
- 사전 심사는 지나치게 엄격한 것과 비교하여,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부재

표 5 도시재생 뉴딜 기금 지원의 특성과 한계

구분	특징	내용
재원	주택계정에 대부분 의존	주택계정(국민주택채권, 입주자저축 등) 전입금·차입금 등
자금용도	공간 관련 시설자금 집중	토지 또는 건축물 매입, 신축 또는 리모델링 자금
사업대상	특정 시설사업 중심	복합개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노후산단 생활SOC / 공동협동공간, 창업시설 / 임대상가조성, 상가 리모델링
접근성	접근성 낮음	서울과 부산 2개소에서 접수 가능
심사기준	사업심사를 진행하나 담보력 중심, 심사정보 정보공개 부족	1. 사업심사(신청인 적격,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의 적정부 심사) * 임대료, 임대기간, 임차인 조건 등을 기준으로 공공성 평가 2. 담보심사(부동산, 지급보증서, 담보취득)

출처: 박소영 외 202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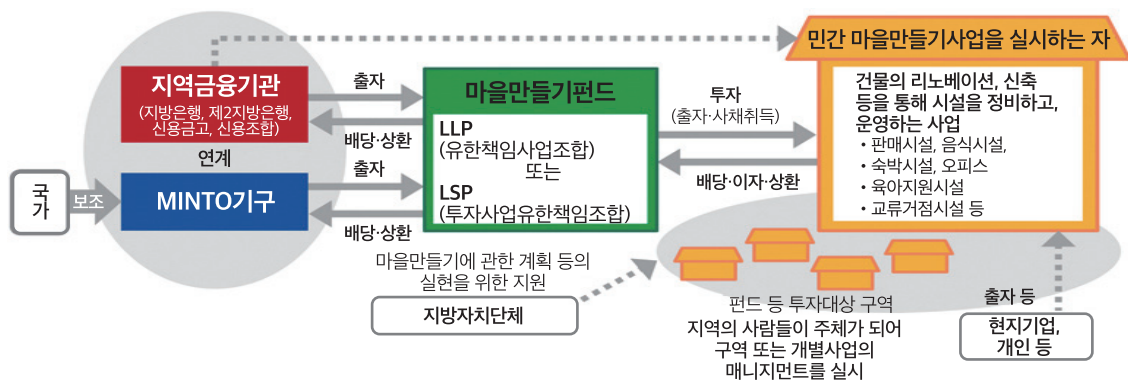
3

국내·외 도시재생금융 지원 사례

[일본] MINTO기구(민간 도시개발 추진기구)와 지역금융기관이 함께 출자해 만든 마을만들기 펀드가 민간 지원

일본은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등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예산 지원은 축소(서수정 2016),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마치즈くり(まちづくり) 펀드와 같은 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체계 전환

그림 1 일본 MINTO 마을만들기 지원 펀드(매니지먼트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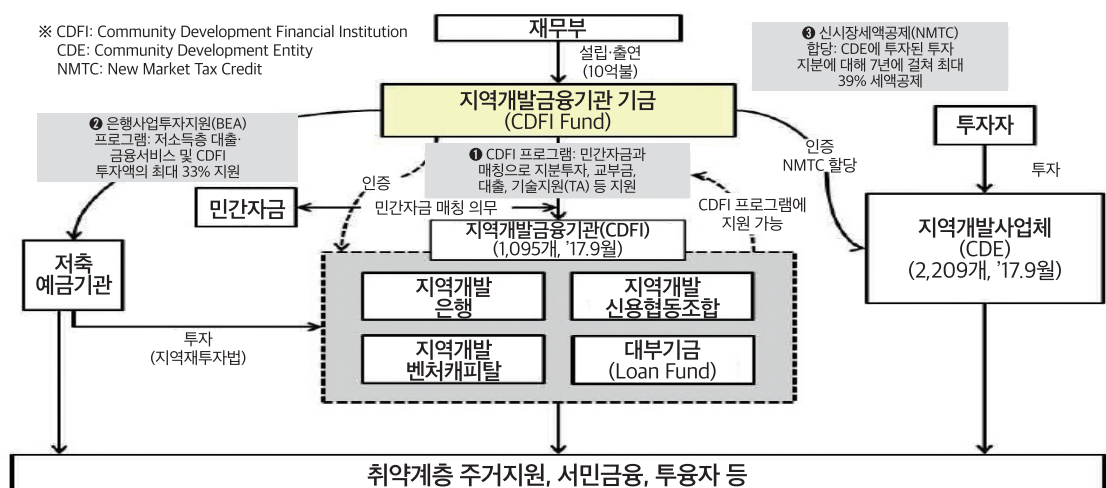
자료: 박소영 외 2020, 105 (2020년 11월 30일 실시된 임정민 LHI 수석연구원의 자문회의 자료로 원자료는 MINTO기구 홈페이지 업무 안내, <http://www.minto.or.jp/products/management.html> [2020년 11월 30일 검색]).

[미국] 전국 1,095개의 지역개발금융기관이 국가 CDFI 펀드와 민간 지역재투자자금을 연계하여 운영

미국 재무부는 CDFI 펀드를 조성하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지역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운영

- 이를 위해 재무부는 CDFI에 대해 자금 지원과 함께 기관 인증 및 교육훈련, 경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민간자금이 지역에 투자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는 등 제도적 환경 조성

그림 2 미국 CDFI 운용체계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8.

[국내] 광역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금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금융 등장

광역지자체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 및 운영

- 현재 모든 광역지자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자체 출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영

- 재원은 주로 지자체 출연금을 통해 조달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신탁, 민간 사회적 금융중개기관 등을 통하여 운영
- 지자체와 민간기관은 무이자 용자, 이자 지원, 원금손실액 지원 등의 방식을 혼합하여 역할과 책임분담 실험 중

표 6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개요

구분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전북
명칭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조례제정	2012년 7월	2016년 7월	2019년 10월	2020년 6월	2020년 8월
소관부서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추진단	사회적경제과
기금 재원	1. 서울시 전입금 2. 기금운용 이자수입 3. 용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 5. 그 밖의 수입	1. 경기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전라북도 및 사·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규모	58억 원 (2020년 전입금)	48억 9,057만 8천 원 (2020년 전입금)	-	-	5억 원 (2021년 전입금)
특징	(서울) 기금을 민간 운용 기관에게 무이자로 대출	• (경기) 기금을 금융 기관에 대여, 사회적 가치에 따라 1.5~2% 이자지원 • (신탁) 사경 기업에 대출	• (충남) 이자 지원, 원금 손실 발생 시 손실액 70% 지원 • (신탁) 자체자금으로 대출 실행		

주: 강원도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2014년 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 중.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3개 광역지자체는 관련 조례에 기금 조성 근거가 있으나 운영하고 있지 않음.

출처: 박소영 외 2020, 124.

최근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공제사업 운영기관, 창투사, P2P 금융기관 등 다양한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장

- 이들은 단순히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단, 창업 지원, 컨설팅,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등의 각종 기업 지원을 통해 민간 주체의 성장을 함께 도모 노력

표 7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례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1	(사) 한국 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조합	8	재단법인 벤드	15	(주) 임팩트스퀘어	22	오마이컴퍼니
2	(사) 함께만드는세상사회 연대은행	9	C프로그램	16	크레비스파트너스	23	비플러스
3	함께 일하는 재단	10	(재) 한국사회투자	17	아크 임팩트 자산운용	24	한살림펀딩
4	행복나눔재단	11	(주) 소풍벤처스	18	IFK 임팩트 금융	25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5	(재) 나눔과 미래	12	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19	D3 주빌리 파트너스	26	팬임팩트 코리아
6	사단법인 피피엘	13	한국사회혁신금융(주)	20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27	(주)한국사회혁신금융
7	(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4	(주)HG이니셔티브	21	엘로우독	28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처: 장지연 2020.

4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기본방향] 보조금 중심에서 민간참여를 위한 기금 중심으로 재정 지원의 중심 이동

2단계 도시재생 뉴딜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인프라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로 확장하는 것에 역량 집중

-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 기금 지원은 쇠퇴지역 내 개인·조직·프로젝트 등 민간부문에 대한 맞춤형 관계금융 역할 강화

그림 3 도시재생 포스트-뉴딜(Post-New Deal) 중점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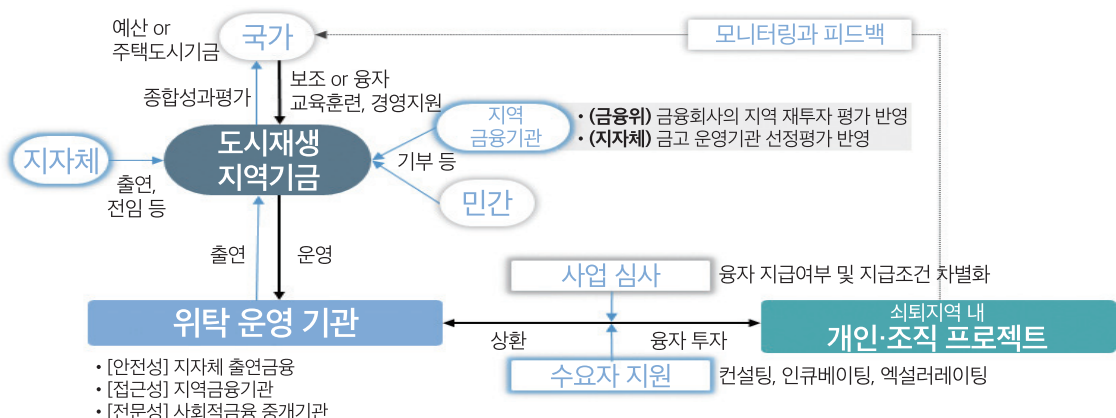
출처: 박소영 외 2020, 146.

[추진체계] 중앙주도형에서 중앙·지자체·민간 역할 분담형으로 전환

중앙이 주도하고 지역은 정해진 틀과 내용을 따라가는 방식에서 중앙과 함께 지자체와 민간이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

- 도시기능 증진 지원 부문은 광역 지역별로 별도의 주머니(가칭 '도시재생 지역기금')를 설치하고 그곳에 국가, 해당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자, 다양한 민간 전문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그림 4 도시기능 증진 지원 부문 도시재생기금 운영체계 개선방안



출처: 박소영 외 2020, 159.

(재원조달) 국가·지자체와 함께 지역금융기관, 민간 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부문 공동 조달

- 단기적으로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조성 및 재원을 확보하면 국가가 보조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일부를 무이자로 융자하여 초기 재원 마련 지원
-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신흥·새마을금고·지역은행 등 지역금융기관, 민간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분야와 공동 재원 마련 모색
 - 지역금융기관의 도시재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 반영 또는 지자체가 금고 운영기관 선정평가 시 반영하는 등 유인책 필요

(운영주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간주체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지역금융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력**(지원방식)** 사회적 가치에 따른 지원조건 차등화 및 사후관리 강화, 컨설팅·엑셀러레이팅과 연계한 지원, 지원 대상 공간범위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금상품 제공, 정보의 사전 공개 등 과정 전반의 투명성 확보**표 8** 성장단계별 기금 지원방안

구분	준비기	창업기	성장기
특징	(개인) 교육, 탐색, 실험, 네트워킹	(조직화) 1인 또는 소규모 인원	직원 증가, 사업 확장
공간활용	집, 도서관, 카페 등 이용	사무실 임차	사옥 조성
필요자금	운영비	임차료(전세자금), 리모델링비 운전자금	토지매입, 조성비, 리모델링비 운전자금
자금규모·기간	소규모 단기자금	중규모, 5년	대규모 장기자금
재원조달방식	융자	융자·임팩트 투자	융자·투자
현재 상품	-	-	○○○○○○○
개선 상품	○○	○○○	○

출처: 박소영 외 2020, 168.

[시범사업] 기존 지역 금융자원을 활용하여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이후 전국 확대

-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도시계정을 신설 운영)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은행, 농협 등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지역금융 모두의 참여가 용이
-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연계 운영) 지원대상을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3개 요건을 만족하는 읍면동(비도시지역 등 제외)으로 집중하는 조건으로 광역지자체에 조성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기금에 국가 도시재생 재정 지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8.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
 국토교통부. 2021.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세종: 국토교통부.
 국회예산정책처. 2019.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김은경·김지혜. 2017. 지역기반 관계금융 생태계구축방안. 수원: 경기연구원.
 서수정. 2016.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기금지원 프로그램 개발. 세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장지연. 2020. 사회적 금융 활성화 현황 및 제도화 방향. 2월 18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을 위한 공개토론회(온라인).
 천관율. 2020.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필요한 것. 시사인, 3월 17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62> (2021년 4월 15일 검색).
 MINTO. <http://www.minto.or.jp/products/management.html> (2020년 11월 30일 검색).

※ 이 브리프는 '박소영·정소양·홍나은. 2020.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체계 구축방안. 세종: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 **박소영**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sympark@krihs.re.kr, 044-960-0672)
 • **홍나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nehong@krihs.re.kr, 044-960-0252)

• **정소양**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jungsy@krihs.re.kr, 044-960-0176)

**KRIHS** 국토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홈페이지 www.krihs.re.kr
팩스 044-211-4760